

# 미남침례회 선교사들의 한국에서의 초기 사역, 1955-1958

김 용 국

〈교회사 부교수〉

yongkim@kbtus.ac.kr

## I. 논문의 목적과 전개 방식

한국 침례교회가 오늘날 주류 교단의 위상을 갖게 된 계기는 미남침례교회의 한국 선교에 기인한다. 최초의 남침례교 선교사 존 애버네티 부부(John and Jewell Abernathy)가 내한할 1950년 당시 한국 침례교회는 전국에 40여 개 교회와 수백 명의 교인만 있는 매우 연약한 상태였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교단은 1951년부터 시작된 남침례교 선교사들의 구호사업, 의료선교, 복음전파, 교회개척, 교회와 총회의 기관 육성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며 교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한국 침례교 역사책들은 남침례교 선교부가 1950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 침례교회의 운영과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sup>1)</sup> 이처럼 남침례교 선교에

---

1)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525. Timothy Hyo-Hoon

대한 연구는 한국 침례교 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편인데, 그 이유는 사료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여 기존의 역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채워야 할 필요를 느꼈고, 그러한 취지에 따라 남침례교회의 한국선교 착수 배경과 1951년부터 1954년까지 한국선교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sup>2)</sup>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에 이어서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남침례교 선교사들의 사역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논문의 목적은 한국 침례교회의 기존 역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발굴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선교사들의 글 즉, 일차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를 조명할 것이다. 논문의 전개 방식은 일차자료를 기초로 당시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역사가의 관점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 입증하는 즉, 뚜렷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발굴한 일차자료가 증언하는 역사를 충실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논문을 전개할 것이다. 본 논문이 사료에 기초한 역사기술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남침례교 선교를 포함한 1950년대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Cho, "A History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1889-1969," Th.D. diss.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0), 189. 총회역사편찬위원회, 「한국침례교회사」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0), 222.

2) 김용국, "미남침례회 한국선교부의 설립 과정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 62 (2018년 가을): 81-109. 김용국, "미남침례회 선교사들의 한국에서의 초기 사역, 1951-1954," 「복음과 실천」 64 (2019년 가을): 245-78.

## II. 선교사들의 인적 변화 및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적응 모습

남침례교회는 1949년 동아기독교의 선교 요청을 받아들여 1950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했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왔으나, 1955년부터는 젊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왔다. 선교사들의 인적 변화 및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적응 모습에 관해 살펴보자.

### 1. 선교사들의 인적 변화

남침례교회는 1950년 2월 27일 존 애버네티 부부를 한국에 파송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한한지 4개월 만에 한국전쟁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피신하였다. 애버네티는 1951년 4월 14일 토요일에 다시 복귀하여 선교활동을 재개하였고, 그해 11월 렉스 레이(Rex Ray)와 넬슨 브라이언(Nelson A. Bryan)이 가세하였다. 이들 세 명의 선교사는 1952년 1월에 잠정적으로 한국선교부(Korea Baptist Mission)를 조직하고, 의료선교와 구제사업을 실행했다. 애버네티 부인 주얼도 1952년 9월에 한국에 왔다.<sup>3)</sup> 1953년 2월 간호선교사 아이렌 브레넘(Irene Branum)과 루비 휘트(Ruby Wheat)이 왔고, 얼마 후 의사 요컴(A. W. Yocum) 박사도 왔다. 그해 대전의 성경학원 사역을 위해 테드 다웰(Ted Dowell)과 다니엘 레이 부부(Daniel and Frances Ray)가 왔으며, 렉스 레이 아내도 합류했다. 애버네티 부부는 서울 수복 후, 피난민들이 대거 서울로 몰려간 상황을 감안하여 서울에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했다.<sup>4)</sup> 잠정적 조직이었던 한국선교부는 1954년

3) "Handbook, Korea Baptist Mission (1961)," 13. 이 문서는 1961년에 한국선교부가 선교사들의 인적 변화를 기록한 자료이다.

4) Branum, "Three Mission Stations in Korea," *Annual of Southern Baptist*

7월 13일 서울 애버네티 자택에서 규정, 임원, 위원회를 갖추어 정식 조직으로 발족되었다. 레이가 회장에, 헛이 총무 및 재무에 선출되었다.<sup>5)</sup>

1955년에는 호주 선교사 빈스 채터웨이(Vince Chattaway) 부부가 내한하여 구호사업을 도왔으며, 남침례교 선교사 얼 파커(Earl Parker) 부부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을 상대로 사역했다. 루시 와그너(Lucy Wagner)는 여전도회 사역을 맡았고, 의료선교사 로버트 라이트(Robert and Paula Wright) 부부가 왔으며, 브라이언은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였다.<sup>6)</sup> 1956년에는 파크스 말러(Parkes Marler) 부부, 굿윈(J. G. Goodwin) 부부, 맥스 윌락스(Max Willocks) 부부, 의료선교사 로버트 도로우(Robert Lee and Mary Dorrough) 부부가 왔다. 렉스 레이와 브라이언은 1956년에 은퇴했다.<sup>7)</sup>

1957년부터 선교사들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왔다. 돈 존스(Don C. Jones) 부부, 루이스 오코너(Louis O'Conner) 부부, 알버트 게미지(Al Gammage) 부부, 찰스 테버(Charles Tabor) 의사 부부, 레베카 램버트(Rebecca Lambert) 처녀 선교사 등이 예일에서 공부했다. 베티 헌트(Betty Jane Hunt) 선교사는 교육 사역 및 침례회신학교 다월 교장의 비서 직분을 맡게 되었다.<sup>8)</sup> 애버네티 부부는 1년간의 휴가를 마치고 1957년 1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선교부 회계, 선교부 사무실 시내 이전, 선교사 주택 위한 부지 매입 등의 일을

---

*Convention*, June 1954, 171; "Handbook," 13.

5) J. G. Goodwin, Jr., "Mission in Transition," *The Commission* 38 (March 1975): 16. R. Max Willocks, "Christian Mission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Work of Southern Baptists," (Th.M. thesis,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62), 156.

6) "Handbook," 13.

7) *Ibid.*, 14.

8) *Ibid.*

했다.<sup>9)</sup>

1958년에 다월이 휴가를 떠났고, 윌락스가 교장 대리 임무를 맡았다. 존슨은 신학교 교수로 배치되었고, 굳윈은 침례병원 사무국장을 맡았으며, 말러는 서울 지역 선교사로 배정되었다. 1958년에 새로 들어온 선교사로는 보즈맨(O. K. Bozeman Jr.) 부부, 가이 헨더슨(Guy Henderson) 부부, 케네스 톰슨(Kenneth Thompson) 부부가 있다. 얼 파커 부부는 은퇴하였고, 요킴 의사는 미국으로 돌아갔다.<sup>10)</sup> 1958년에 말러 가족이 서울로 이사했고, 휴가에서 돌아온 루시 와그너는 서울에 거주하며 부인전도회의 일을 하였다. 1958년에 36명의 선교사들이 서울, 부산, 대전에 흩어져 있었다.<sup>11)</sup>

## 2. 선교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적응 모습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적응 과정에 대해 산발적인 기록을 남겼다. 침례병원 원장 로버트 라잇은 크로리에게 1957년 3월 7일에 보낸 편지에서, 가족이 문화적 차이로 힘들어 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라잇은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지났으나 어린 두 딸이 여전히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며, 문화적 차이가 커서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거나, 한국말을 아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sup>12)</sup> 라잇과 그의 아래 폴라는 7개월 후인 1957년 10월에 후원자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

9) J. Winston Crawley, "Korea Mission,"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8, 182.

10) "Handbook," 14.

11) J. Winston Crawley, "Korea,"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9, 176.

12) Dr. Robert M. Wright, Baptist Mission A.P.O. # 59 San Francisco, California, Letter to Dr. Winston Crawley, P.O. Box 5148, Richmond, Virginia, March 7, 1957, 4.

편지에는 적응의 어려움을 심령의 부흥과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통해 극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라잇 부부는 모든 재한 선교사들이 다음 해 계획을 세우는 일로 1957년 7월의 한 주간을 대전에 모였는데, 그때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루 오전 내내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결과 전에는 어려움이 극복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성령님께서 상상해보지 못한 통찰력과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고 했다.<sup>13)</sup> 라잇 부부는 1957년 8월에 무창포 여름 피서지에서 선교사 가족들 모임도 한국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테니스, 수영 강습, 보트 타기, 하이킹, 조개잡이, 파티, 소풍 등”으로 즐겁게 지냈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게임하는 것도 무척 즐거웠다고 했다. 라잇은 1957년 10월 1일 다른 의사(도로우) 부부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병원에 남아 있는 의사 선교사는 자신이 유일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sup>14)</sup> 라잇 부부의 예에서 보듯, 성령 충만과 선교사들과의 교제로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잇 부부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며 빠른 속도로 적응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1957년에 내한한 돈 존스는 한국이 피난민 문제, 청소년 범죄, 가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푸른 산과 눈부시게 맑은 시내와 강이 아름다운 나라여서 자신은 “두 번째 고향”인 한국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sup>15)</sup> 존스는 또한 한국은 서양인에게 깊은 배려를 한다며,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그는 어느 추운 겨울 밤 시골에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자동차가 시동이

---

13) Bob & Paula Wright, Baptist Mission PO Box 76 Pusan, Korea, Letter to Friends and Family, October 1957, 1.

14) Ibid., 1-2.

15) Don C. Jones, “Korea—Land to Love,” *The Commission* 22 (March 1959): 74.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로 부인에게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인근의 경찰서로 갔다. 경찰관은 한 시간 동안이나 전화기를 돌려서 대전 존스의 집 근처 경찰서에 연락했다. 대전 경찰서는 두 명의 경찰관을 존스의 집으로 보내 메시지를 전달하고 밤새 집을 경계해 주었다고 했다. 존스는 또한 한국인들은 힘든 노역을 하지만 대체로 발달하며 불평하지 않고, 자식들 교육에 매우 헌신적이라며, 남침례교는 미래가 밝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선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6)</sup> 남침례교 선교사 루시 와그너, 폴라 라잇, 주니타 존스 등은 한국에서 기독교가 성공하는 이유는 강력한 국가 종교가 없고, 무속신앙, 불교, 유교 등도 조직화 되어 있지 않아 복음전파에 장애가 없는 것과 더불어, 한국인들이 선교사를 존중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 했다.<sup>17)</sup> 이처럼 남침례교 선교사들 가운데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으나, 반대로 긍정적인 인식에 기초해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III. 남침례교 선교사들의 사역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남침례교 선교는 주로 구호사업과 의료선교에 집중되었으나, 1955년부터는 전도와 교회 개척, 예배당 건축, 교회와 총회의 기관 육성 등에 선교 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의료선교는 침례병원 건물이 완공되면서 안정되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

16) Ibid., 74-5.

17) Lucy Wagner, Paula Wright, Juanita Jones, "O Worship the King in Korea," *Royal Service* 54 (November, 1959), 34.

## 1. 전도와 교회 개척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1955년에도 구호사업을 지속했으나, 전도와 교회 개척으로 선교의 중심축을 옮겼다. 애버네티는 총회구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여전히 활동했고, 렉스 레이 부부는 호주침례교총회 파송 선교사 빈스 채터웨이 부부와 함께 구호물자를 나누어주었다.<sup>18)</sup> 그러나 선교사들은 지역을 방문하여 전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기 시작했다. 애버네티는 1955년에 38선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레이 아들 대니얼 레이(Dan Ray)는 시골 마을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었다. 파커 부부는 부산에 있는 중국인 피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은 당시 남한에 있던 20,000명의 중국인을 상대로 사역하는 초교파적으로 유일한 선교사였다.<sup>19)</sup>

애버네티는 1955년에 자신의 운전기사 김씨를 전도했다. 그는 15년간 순종의 황후 윤씨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었다. 김씨는 애버네티 부부를 왕궁으로 데려가 왕실 전용 차고에 전시되어 있는 서리형(surrey) 마차 1대와 프랑스 자동차, 그리고 캐딜락을 보여주었다. 애버네티는 종종 차를 타고 나가야 했고 자동차 관리를 위해 김씨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 안에 그가 거처할 작은 집을 마련해주었다. 김씨는 애버네티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성경과 신혼회 잡지를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개종하였고 금봉어들이 살고 있는 애버네티 집 정원의 연못에서 침례를 받았다. 연못은 서울침례교회 예배당이 완공되기 전까지 침례 장소로 사용되었다. 김씨는 그의 가족도 전도했다.<sup>20)</sup>

---

18) Dan and Frances Ray, "Korean Mission,"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30-June 2, 1956, 161-2.

19) Dan and Frances Ray, "Korean Mission," 161-2; Ruby Wheat, "Korean Mission,"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7, 174.

20) Jewell L. Abernathy, "Can Catch One Small House for Kim?" *Royal Service*



파커 부부는 서울과 부산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목회하였고, 1956년 부산에, 1957년 서울에 각각 중국인 예배당을 헌당했다.<sup>21)</sup> 말리는 창리라는 마을을 방문했다. 말리 일행이 도착하자, 마을 종이 울렸고 마을 사람들 모두 방앗간 마당에 모였다. 말리는 예수님을 모셔 드리라는 단순한 설교를 했는데, 1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말리는 오래된 집을 사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기증했다. 말리는 대전의 여성들이 일하는 공장에 위치한 선교 처소에서 설교했다. 44명의 여성들이 예배에 참석했고 그 중 21명이 회심하였다. 그는 또한 공주에서 3일간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27명의 남자 고등학생과 4명의 성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sup>22)</sup>

다니엘 레이는 1957년에 남침례교 선교사 중 최초로 울릉도를 방문하여 설교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1959년 울릉도에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했다. 존스 부부, 루시 와그너, 6명의 신학생, 통역관 등이 10일 간의 강습회를 인도했다.<sup>23)</sup> 1958년에 윌락스와 다니엘 레이는 청주시 문의마을에 있는 천막 교회를 방문했다. 교인들은 낡은 천막의 차디찬 바닥에 앉아 예배를 드렸으나, 설교에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문의교회 교인들은 인근 노양마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상태였다. 윌락스는 노양마을에 가서 수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했다. 결국 노양마을의 어른들은 마을회관을 예배장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다. 보리와 쌀을 탈곡하고, 고추를 말리며, 민요를 부르며 춤을 추는 장소로 사용되던

---

49 (November 1955), 27.

21) Ruby Wheat, "Korean Mission,"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7, 174.

22) L. Parkes Marler, "A Communist Was Converted," *The Commission* 21 (April 1958), 7, 27.

23) Lucy Wagner, "Leaders in Training on Ul Lung Do," *The Commission* 23 (January 1960), 28.

마을회관은 약간의 수리를 거친 후 예배당으로 사용되었다.<sup>24)</sup>

노양 교인들은 산 너머 마동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윌라스에게 그곳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윌라스 일행은 “참새, 메뚜기, 산에서 나는 뿌리 식물로 된 점심을 먹고 난 후, 산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갔다.” 적당한 산길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도착한 마동마을은 백인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곳이었다. 선교사 일행은 마을 어른들과 눈이 휘둥그레진 아이들의 환영을 받았다. 사람들은 단순한 말씀에 반응했고, 마을 전체가 기독교를 믿는 쪽으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소유를 그리스도께 드리려 하였는데, 그런 모습을 본 선교사들은 전율을 느꼈다.<sup>25)</sup> 말러 부부는 1958년 봄에 한 천막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에 왔으나,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계속 떠들기만 했다. 아이들은 천막을 향해 돌을 던지며 큰 소리로 웃어댔다. 선교사들이 지프차를 타러 걸어갈 때, 동네 아이들이 쫓아왔다. 말러는 아이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따라 읽게 했다.<sup>26)</sup>

남침례교 해외선교부는 군인 전도도 일찍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 훗 선교사에 의하면, 1956년에 내한한 말러 부부는 원래 군인을 상대로 사역할 목적으로 파송되었다.<sup>27)</sup> 한편 가이 헨더슨은 1958년 여름 미시시피 주 키슬러 공군본부에서 훈련 받던 이희호라는 한국 공군 하사를 만났다. 이희호는 미국에 있는 동안 헨더슨이 담임으로 있던 빌록시(Biloxi)에 있는

---

24) R. Max Willocks, “A Chain of Churches Develops As Koreans Share the Gospel News,” *The Commission* 21 (November 1958), 24.

25) Ibid.

26) Martha Ellen Marler, “Seeing a Need She Cannot Meet, Missionary Realizes She Can Pray,” *The Commission* 22 (February 1959), 25.

27) Wheat, “Korean Mission,” *Annual*, May 1957, 174.

임마누엘침례교회를 다녔다. 헨더슨 부부는 한국 선교사로 임명받고 1958년 9월에 예일대학교의 극동언어연구소(Institute of Far Eastern Languages)로 가서 공부했다. 헨더슨은 1959년 대전 대흥동침례교회가 오클라호마 제일침례교회 담임목사인 허셀 흡스를 강사로 개최한 부흥회에서 이희호를 만나게 되었다. 이희호는 부흥회 기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그 장면을 본 헨더슨은 50만 한국군인 전도를 꿈꾸게 되었다.<sup>28)</sup> 이와 같이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복음전파와 교회 개척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했다.

## 2. 예배당 건축

선교사들은 교회들이 대거 개척되자 예배당 건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애버네티는 1955년 가을경 비무장 지역에 인접한 강원도 양구에 세그룹의 침례교 모임이 있는데, 예배당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양구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100여명의 침례교인들이 낡은 군대 천막에 모여 있었다. 애버네티는 교인들이 마을의 요지에 예배당 부지를 확보해놓았으나, 그들의 힘만으로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약속했다.<sup>29)</sup> 애버네티 일행은 양구에서 약 24킬로미터 떨어진 옥산포로 갔다. 그곳의 침례교회는 이미 예배당을 짓고 있었으나, 물자가 소진되어 예배당을 완공할 수 없었다. 애버네티는 침례교 군목협회(Baptist Chaplains' Association)에서 이들 교회의 상황을 다루었고, 모든 군목들은 돕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군사 접견지역에 세 개의 침례교 예배당이 완공되었다.<sup>30)</sup> 한편 말리는 북구리라는 산골마

28) Guy Henderson, "Led By The Unseen Hand," *The Commission* 23 (July 1960), 13.

29) John A. Abernathy, "Above the Thirty-Eighth Parallel," *The Commission* 19 (May 1956), 29.

을에 예배당을 세워주었다. 30여 명의 북구리 교인들은 3년 동안 낡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sup>31)</sup> 남침례교 해외선교부는 라티문 성탄절 헌금(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을 통해 예배당 건축을 지원했다. 최초의 라티문 예배당은 1952년에 지은 부산 충무로교회였다. 다음은 대전 대흥동침례교회였고, 세 번째로 1953년 12월 서울 영등포침례교회가 완공되었다. 1954년에는 마산과 대구에 예배당을 건축했다. 이후 아현 동교회와 서울침례교회가 라티문 헌금으로 지어졌다.<sup>32)</sup>

### 3. 학생부와 청년부 사역

한국 침례교회의 학생부와 청년부 사역은 미군들이 도입하였고, 여성 선교사들이 운영했다. 1954년 11월 브레넌이 남자청년 모임인 신앙훈련회(Baptist Training Union; BTU)와 18-25세의 미혼 여자청년 모임인 여자청년회(Young Women's Association; YWA)를 책임지고 있었고, 핏은 남녀 학생모임인 왕의사신단(Royal Ambassador; RA)과 소녀회(Girls in Auxiliary; GA)를 이끌고 있었다.<sup>33)</sup> 1955년에 애버네티 부인인 주얼(Jewell)이 부인전도회와 5세부터 9세의 모임인 일광회(Sunbeam Band)를 맡았다.<sup>34)</sup> 애버네티 부부가 1955년 12월 5일 휴가차 미국으로 떠나자, 루시 와그너가 부인전도회와 일광회 사역을 이어받았다. 다월은 왕의사신단 지도자 캠프를 인도했으며, 그의 부인은 여자청년회를 돕는 일을 했다. 브레넌은 부산 지역 교회들의 신앙훈련회를 돕는 일과 기독교 문서 번역 사역을 했으며, 핏은 왕의사신단과 소녀회가 사용할 교재의 번역과

---

30) Ibid.

31) Marler, "A Communist Was Converted," 7.

32) Jewell L. Abernathy, "Letter-ettes," *Royal Service* 49 (December 1955), 24.

33) Wheat, "Korea," *Annual*, May 1955, 170.

34) Dan and Frances Ray, "Korean Mission," 161-2.

1955년 소녀회 여름 캠프를 주관하는 일을 맡았다.<sup>35)</sup>

1956년 8월에 학생부와 청년부의 여름 캠프가 대대적으로 개최되었다. 20개 교회에서 52명의 청년부 회원, 87명의 소녀회 회원, 100명 이상의 왕의사신단 회원이 참가했는데, 13명이 신앙을 고백했고, 7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재 헌신했다.<sup>36)</sup> 캠프는 참가자들에게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녀회 대표 중 한 명은 시골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간호 선교사가 되어 한국의 시골 마을들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sup>37)</sup> 청년부 캠프의 하이라이트는 주일 저녁에 실시한 전도 집회였다. 젊은이들은 주일 오후 동네로 나가 사람들을 집회에 초청하였다. 집회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먼저 왔고, 얼마 후 어른들도 와서 200명 이상이 집회에 참석했다. 한 여자청년회 회원은 주일 저녁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글을 몰라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앞으로 크리스천 교사가 되어 문맹을 없애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다른 청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결심했다.<sup>38)</sup> 1958년 여름에도 3주간 무창포 침례교 캠프장에서 여름캠프를 했다. 캠프장에는 4개의 긴 막사 같이 생긴 4개의 기숙사, 채플, 샤워장 등 6개의 건물이 완공된 상태였다. 청소년부 50명, 소녀회 26명이 등록했다. 캠프 일정은 성경공부, 설교 말씀, 그룹 토론, 찬양,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이루어졌다. 캠프 기간에 39명의 결신자가 생겼다. 어떤 학생은 불교를 믿는 부모를 전도할 것을 공언했다.<sup>39)</sup>

---

35) Ibid., 162.

36) Wheat, "Korean Mission," *Annual*, May 1957, 174.

37) Lucy Wagner, "Epistles," *The Commission* 19 (October 1956), 28.

38) Ibid.

39) Juanita Jones, "Korean Seminary Students Show Concern for Unreached Villages," *The Commission* 22 (April 1959), 24.

청년부 사역은 주한 미군의 참여로 풍성해졌다. 예를 들면 1958년에 서울 침례교회에서 시작한 영어신앙훈련회(English-speaking Training Union)가 그것이다. 남침례교 출신 군인들은 교회를 도울 일을 찾다가 기존의 신훈회 외에 영어로 말하는 신훈회 모임을 만들었다. 영어신훈회는 미군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부정적 생각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미국 청년에게는 한국 기독교 신자의 열정을 보고 도전받는 계기가 되었다.<sup>40)</sup> 영어신훈회는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도 했다. 영어신훈회 멤버 프랭크 버저(Frank Burger)는 “나는 한국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즐겁다. 뜨거운 온돌방에 방석을 깔고 앉아 영하의 날씨에 발을 따뜻한 이불 밑에 넣는다. 나는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sup>41)</sup> 이처럼 다양한 학생부와 청년부 사역은 한국 침례교회의 수적,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 4. 부인전도회

오늘날 여전도회의 전신인 부인전도회는 1953년 2월에 내한한 간호 선교사 브레넘과 횃에 의해 시작되었다.<sup>42)</sup> 이후에는 1953년 6월 8일에 내한한 간호 선교사 루시 라잇이 부인전도회 사역을 책임졌다.<sup>43)</sup> 라잇은 다른 여성 선교사들이 주일학교 단체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한 것과 달리, 처음부터 부인전도회 사역만 맡았다.<sup>44)</sup> 부인전도회는 1954년 5월 5일 대

---

40) Jewell Leonard Abernathy, “Brothers in Christ in Korea,” *The Baptist Training Union Magazine* 34 (August 1959), 12-3.

41) *Ibid.*, 13, 50.

42) Irene Branum, “Three Mission Stations in Korea,”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June 1954, 171.

43) Wheat, “Korea,” *Annual*, May 1955, 170.

44) Dan and Frances Ray, “Korean Mission,” 162.

전 대흥동침례교회에서 개최된 제44차 대한기독교침례회연맹총회의 총회 기간에 라잇이 준비한 규약을 통과시키고, 임원진을 구성하여 공식적으로 설립했다.<sup>45)</sup>

1955년도 부인전도회의 사역으로는, 부산 충무로교회에서 제2차 총회를 개최 대의원들에게 규약과 세칙을 배포하고, 개교회에서 부인전도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강좌를 열었다. 당시 부인전도회는 주일학교 단체들과 출판 업무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녀회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다룬 「소녀회 입문」(G. A. Manual)을 번역 출판하였고, 「바울의 생애」(Life of Paul), 「어떻게 시작되었나」(How It Begins) 등의 책도 출판했다. 그리고 부인전도회의 항구 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고전 3:9)와, 부녀회 회가 “오시오 부녀들”(합동 34장 곡)을 각각 채택하였다. 부인전도회를 상징하는 색깔을 연보라색으로 정하고, 배지는 미남침례교 여전도회의 휘장을 그대로 사용하되, 글자만 한국부인전도회로 고치도록 했다.<sup>46)</sup> 부인전도회는 1955년 6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1회 지도자 강습회의 운영을 도왔다. 이것은 한국신훈회연맹(Korean Training Union)의 최초 전임사역자가 된 마이크 추(Mike Chiu)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교단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 교회에 발송하였다. 강습회에는 신훈회뿐만 아니라 왕의 사신단, 소녀회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신훈회 운영방법, 오후에는 왕의 사신단과 소녀회 운영방법, 밤에는 청지기 훈련으로 짜여졌다. 강습회에는 각 교회의 대표들과 100여 명의 대전 신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sup>47)</sup>

부인전도회는 제3차 총회를 부산 충무로교회에서 1956년 4월 19-20일

45) 조혜도, 왕은신, 「한국침례교 여전도회사」(서울: 유니게출판사, 1998), 26-7.

46) Ibid., 28-30.

47) “Foreign Mission News (Korea),” *The Commission* 18 (November 1955), 13.

양일간 개최하였는데, 총회에서 라이트는 100개의 부인전도회와 2,228명의 회원이 있다고 보고했다. 1956년도 부인전도회의 주요 사역으로 부인전도회의 8가지 존재 이유에 대한 팸플릿 1,000부와 왕의 사신단과 소녀회에서 사용될 교재를 출간했다.<sup>48)</sup> 1957년 제4차 부인전도회 총회가 각 교회 대표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침례교회에서 4월 22-23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김추일(수원교회) 재무는 이순도(서울교회) 회장이 미국에서 가져온 승용차와 두 대의 피아노로 인해, 1,779,145환의 부채가 발생되었다고 보고했다. 총회는 미국의 기증자에게 한국정부가 승용차 사용을 불허하므로, 자동차 처분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기로 결의했다. 또한 출판을 후원해준 미국 후원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발송기로 했다. 부인전도회는 남침례교회의 본을 따라 1957년 12월부터 해외선교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고 “라티문 성탄 헌금”을 거두기로 했다. 1957년에 총 112,480환의 라티문 헌금이 모아졌다.<sup>49)</sup> 루시 와그너가 1957년 6월 부인전도회 전담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와그너는 1955년 10월에 내한하여 한국어 공부를 했고, 이후 부인전도회 사역을 맡았다.<sup>50)</sup> 1957년 말에 부인전도회 월간지 제작을 준비하였으며, 「소녀회 입문」을 재출간했다.<sup>51)</sup>

1958년도 부인전도회의 사역으로는, 1월에 “부인전도회 월보” 초판을 출판했다. 이순도 회장의 창간사가 포함된 24-30쪽 분량의 제1호 월보는 인쇄소 정문사를 통해 150부 발행하였다. 월보는 제9호까지 각 교회로 무상 배포되었다. 3월에는 이마리아를 교회순회전도사로 임명하여, 각 교회

48) 조해도, 왕은신, 「한국침례교 여전도회사」, 30, 199.

49) Ibid., 31, 34-5, 199.

50) Wheat, “Korean Mission,” *Annual*, May 1957, 174; 조해도, 왕은신, 「한국침례교 여전도회사」, 31.

51) Margaret Bruce, 「소녀회 입문」, 고명순 역 (서울: 대한침례교부인회총회 출판부, 1957).



를 다니며 부인전도회의 조직과 육성을 돕도록 했다. 5월 10-12일 삼일 동안 경북 점촌침례교회에서 부인전도회 5차 총회를 개최했다. 1958년에는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부인전도회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마르다 말러, 주얼 애버네티, 루시 와그너가 위원으로 선출되었다.<sup>52)</sup> 이처럼 부인전도회는 여성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견실하게 성장했다.

## 5. 청지기 운동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자립교회 육성을 위해 1958년부터 청지기 운동을 펼쳤다. 1958년 1월에 무어 박사(Dr. Merrill D. Moore)와 그린스텝 박사(Dr. W. E. Grindstaff)가 내한하여 청지기 강습회를 열었다. 참석한 120여 명의 목회자들은 크게 감동받아 교인들에게 청지기 강의를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목회자들은 가난한 교인들이 십일조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현금 생활을 강조하지 않았는데, 청지기 강습회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지기 훈련이 꼭 필요한 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sup>53)</sup>

## 6. 침례회신학교

침례회성경학원은 1953년 6월 15일, 38명의 남학생과 12명의 여학생 총 50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함으로 시작되었다. 초대 교수진으로 원장에 애버네티, 교수에 한기춘, 최형근, 한태경이 있었다.<sup>54)</sup> 학교가 개원하기 전의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기독교침례회연맹총회는 1952년도 제42차 총회에서 신학교 설립을 결의하였고, 그해 11월 30

52) 조해도, 왕은신, 「한국침례교 여전도회사」, 34-5.

53) Crawley, “Korea,” *Annual*, May 1959, 176.

54) Branum, “Three Mission Stations in Korea,” *Annual*, June 1954, 172.

일 집행위원회에서 이사회를 조직했다. 이사장에 장일수 목사가, 이사에 김용해, 신혁균, 안대벽, 한기춘, 최형근, 최성업 목사가 선출되었다.<sup>55)</sup> 교사로 일제 강점기에 유곽으로 사용되었던 대전시 중동 21번지에 있는 국일관(國一館)을 매입하여 사무실, 강당, 식당, 도서실, 교실 2개, 20여 개 방의 기숙사로 개조해 사용했다.<sup>56)</sup>

이사회는 1954년 2월에 성경학원을 신학교로 격상시키기로 결의하고 교수진을 9명으로 확대했다.<sup>57)</sup> 이사회는 1954년 2월에 문교부에 신학교 인가를 신청했고, 동년 7월 7일 문교부로부터 각종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침례회신학교가 되었다.<sup>58)</sup> 신학교의 학제는 예과 3년과 본과 3년 도합 6년의 정규과정(정과)과, 3년 과정의 별과, 3년 과정의 특수과로 하였다.<sup>59)</sup> 이것은 미국 신학교 학제를 본 딴 것이었다. 본과(seminary proper)는 학부를 마친 이후의 과정으로서 오늘날 신학대학원에 해당되며, 예과는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3년간의 교양과정 혹은 대학(college)과정에 해당된다. 별과는 본과와 예과에서 공부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과정이었다.<sup>60)</sup> 특수과는 1953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한시적 과정이었다. 본과는 예과를 수료했거나 다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나 동등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었고, 별과는 고등학교나 사범학교 혹은 일제 4년제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입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입학할 수 있었다.<sup>61)</sup> 성경학원은 예과 48명, 별과 47명, 특수과 43명의 학

---

55)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56;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377-8.

56)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 70-1.

57) Ibid., 74.

58) "Designed for Growth," *The Commission* 21 (July 1958), 46.

59)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378.

60) "Designed for Growth," 46.

61)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 65-6.

생으로 1954년 4월 8일에 봄 학기를 시작했다. 문교부에 신청한 학생정원은 “본과 50명( $50 \times 3 = 150$ 명), 예과 50명( $50 \times 3 = 150$ 명), 별과 50명( $50 \times 3 = 150$ 명)”이었다. 수업은 예과, 별과, 특수과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반 형식으로 진행했다.<sup>62)</sup>

1955년도 침례회신학교의 교장은 애버네티였고, 다월은 신학교에서는 영어를 충남대학교에서는 영어성경을 가르쳤다. 레이 부부 역시 교수 사역을 했다.<sup>63)</sup> 1955년에 대전시 목동 산 111-7번지에 위치한 18,290평의 땅을 새로운 캠퍼스 부지로 매입하였다. 대지 중 임야가 7,000평이어서 나머지 11,000평만 학교 건물과 운동장으로 사용이 가능했다.<sup>64)</sup> 1956년 3월 8일에 특수과 학생 18명이 졸업했다. 그들은 신학교가 배출한 최초의 졸업생들이었다. 1956년 목동 캠퍼스에 본관 건축을 착공하여 10월 19일 정초식을 거행했다. 모든 공사비는 남침례교 선교부가 전액 부담했다.<sup>65)</sup> 굿윈 부부와 윌락스 부부가 1956년 10월부터 신학교 사역에 합류하였다. 다월은 신학교에 한국어 학교를 개설, 12월부터 수업을 시작했으며, 말러 부부도 신학교와 한국어 학교 사역에 동참했다. 말러는 선교사 관사 건설도 주관했다.<sup>66)</sup>

1957년 3월 29일 34명의 남학생과 5명의 여학생으로 구성된 별과 제1회 39명이 졸업했다. 졸업식은 완공을 앞둔 본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1954년에 별과로 입학한 47명의 학생 중 3년 과정을 마친 사람은 29명밖에 없었으나, 특수과 학생 10명의 별과로 편입해서 39명이 졸업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교사가 대전역 주변의 유

62) Ibid., 82, 87.

63) Dan and Frances Ray, “Korean Mission,” 161-2.

64)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 101.

65) Ibid., 59, 102.

66) Wheat, “Korean Mission,” Annual, May 1957, 174.

흥가에 위치하여 교육에 부적절했다는 것과, 신학교가 정식 대학이 아닌 각종 학교여서 병역 감면의 혜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식 대학의 재학생은 1년 6개월만 군복무하면 되는 특혜가 있었으나, 각종 학교 학생에게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지 않았다.<sup>67)</sup> 1957년 3월에 애버네티가 교장직을 사임하고 다월이 만장일치로 후임 교장으로 선출되었다. 1957년 5월에 3층짜리 본관 건물이 드디어 완공되었다. 본관에는 각 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8개의 강의실이 있었다. 다월은 본관이 완성되자 기숙사 건축을 추진했다.<sup>68)</sup> 다월 교장은 또한 기숙사 학생들이 운영하는 새벽기도회에 매일 참석하고 학생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sup>69)</sup>

1958년에는 몇몇 학생이 병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많은 학생이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등록 학생 수가 1957년보다 적었다. 다월은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갔고, 윌락스가 교장 대리로 사역했다. 선교부는 1958년에 대전시 중심가에 기독교 서점을 개설했다. 1958년에 3개 선교회의 후원으로 시작된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에 침례교 선교사 자녀들도 다녔다.<sup>70)</sup> 1950년대 신학생들은 전도하고, 교회를 방문하여 가르치며, 길거리 예배를 인도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어떤 학생은 여름성경학교를 잘 운영하여 선교사들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의 강사로 활동했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생 조직을 구성해 학생들의 사소한 징계 사항을 다루고, 학생 자치 식당을 유지하며,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매년 「십자가」라는 잡지를 발행했다. 매달 토론회도 개최했는데, “왜 침례교회들은 남자

67) Crawley, “Korea Mission,” *Annual*, May 1958, 182;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 95-7.

68) Crawley, “Korea Mission,” *Annual*, May 1958, 182; “Designed for Growth,” 46.

69)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 67.

70) Crawley, “Korea,” *Annual*, May 1959, 176.

보다 여자 성도가 많은가? 어떻게 남자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다.<sup>71)</sup> 전체적으로 신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었다.

## 7. 침례병원

넬슨 브라이언이 1951년 11월 22일 부산시 남포동 2가 22번지 총무로 교회(부산 선교부) 앞뜰에서 시작한 의료선교는, 1955년 11월 15일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2가 31에 소재한 50개 병상의 병원을 완공함으로써 영속적 사역으로 안정되었다.<sup>72)</sup> 기존의 남포동 병원은 요킵 박사의 주도로 외양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sup>73)</sup> 남포동 병원은 1955년에 하루 평균 400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간호선교사 브래넬과 헛은 병원 일을 하면서, 훈련과 전도 프로그램을 위한 책자의 출판도 맡고 있었다.<sup>74)</sup> 렉스 레이의 책임하에 1953년부터 진행된 영도 병원 공사는 2년 6개월여 만에 완공되었다. 병원명은 중국에서 15년간 선교하다 공산당에 의해 1951년 1월에 순교한 남침례교 의료선교사 윌리엄 월레스(William L. Wallace, 1909-1951)를 기념하여 “월레스 기념 침례병원”으로 하였다.<sup>75)</sup> 병원의 머리돌에는 “이 건물은 육체적 및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헌납된 것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국의 선교사로 일생을 살며 봉사하다가 죽은 윌리엄 엘 월레스 의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라는

71) “Designed for Growth,” 46.

72) Baker James Cauthen, “Found: 10,000 Baptists!,” *The Commission*, March 1952, 14; Gateway to Heaven,” *The Commission* 22 (March 1959), 12; 침례병원 40년사 편찬위원회, 「침례병원 40년사」 (부산: 우주문화사, 1997), 28-9.

73) Dan and Frances Ray, “Korean Mission,” 162.

74) “Foreign Mission News (Korea),” *The Commission* 18 (October 1955), 12.

75) “Gateway to Heaven,” 12.

글귀가 새겨져 있다. 병원의 설립 목적을 환자치료, 복음전도, 의료요원 교육으로 하였다.<sup>76)</sup>

부산시 영도구는 피난민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지역으로, 그곳에 병원을 세운 것은 선교 목적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540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침례병원은 당시 부산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이었다. 3층 짜리 병원 건물의 지하실은 “세탁실, 각종 기계실, 예배실, 상점, 교실, 놀이방 등”이 있었고, 1층은 “진료소, 수술실, 입원실이 있었으며, 3층은 간호사 기숙사로” 사용되었다.<sup>77)</sup> 1955년 11월 29일에 봉헌예배(현당식)가 드려졌으며, 250-3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브라이언 병원장이 사회를 보았고, 루시 라잇과 존 애버네티가 연설을 했다.<sup>78)</sup>

1956년 1월 1일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은 외래진료를 시작했다. 당시 병원 행정 체제는 브라이언 원장, 라잇 간호 부장, 브레넘 수간호사, 헛 입원실 책임자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5명의 한국인 의사, 27명의 한국인 간호사, 30명의 직원이 함께 일했다. 병원은 복음전파를 늘 우선순위에 놓았는데, 예방주사 놓는 날을 주요 전도일로 삼았다. 병원 전임 목회자가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 4-6번 정도 설교하는 때도 있었다. 1956년 3월 초에 병원 채플을 오픈하여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일예배를 실시하였다. 평균 참석 인원은 주일예배에 80명, 주일학교에 150명 정도였다.<sup>79)</sup> 1956년 5월에 로버트 라잇 부부가 침례병원에 합류했다. 이들은 1955년 9월에 내한하였으나, 8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한국어 공부를 했다. 로버트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브라이언을 대신하여 침례병원의 원장이 되었다.<sup>80)</sup>

76)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침례교회사』, 182.

77) 『침례병원 40년사』, 30.

78) “Foreign Mission News,” *The Commission* 19 (March 1956), 21.

79) Wheat, “Korean Mission,” *Annual*, May 1957, 174-5.

로버트는 1923년 11월 24일 텍사스 중부 한 시골마을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기독교 신자였으나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로버트는 11살 때 누이 아이다(Ida)의 영향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침례를 받았으며,<sup>81)</sup> 텍사스 A&M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텍사스주 침례교대학생연맹(B.S.U.) 총무 빌 마셜(Bill Marshall)로부터 중국과 일본 선교에 관해 들었을 때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로버트는 대학생이 된 지 18개월 정도 지난 후, 군에 입대하여 분쟁지역을 다니게 되었다. 그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복무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로버트는 1945년 필리핀을 여행하는 도중에 플라 퍼킨스(Paula Perkins)를 만나 1945년 10월 2일 결혼하였다. 로버트는 1946년 11월에 의료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1947년 가을 휴스턴의 베일러 의과대학(Baylor Medical School)에 입학했다. 1951년 졸업 후 휴스턴과 샌안토니오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부부는 세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 로버트 2세(Robert Jr.)가 1948년 2월 26일에, 첫째 딸 주디스(Judith)가 1949년 8월 2일에, 막내 딸 질(Jill)이 1951년 9월 3일에 각각 태어났다.<sup>82)</sup> 로버트는 해외선교부의 선교사 지원서에 선교의 최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리는 것이며, 다른 사역들은 부수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썼다. 그리고 사회정의와 세계질서는 개인의 심령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이어야 하며, 다른 종교는 거짓이며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타 종교와 타협점이 없다고 했다. 로버트는 성경은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권위라고 기록했다.<sup>83)</sup> 이처럼

80) Dan and Frances Ray, "Korean Mission," 162; Wheat, "Korean Mission," *Annual*, May 1957, 174.

81) Robert Max Wright, "Application for Missionary Service to Foreign Mission Board," (October 26, 1954), 5. 본 자료는 저자가 1999년에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에 있는 남침례교 고문서 보관소를 방문하여 취득한 자료이다.

82) *Ibid.*, 5-6.

라잇은 보수적 신앙인이었다.

1956년 6월 도로우 의사 부부가 병원 사역에 합류했으며, 브레넘은 호주인 간호선교사 빈스 채터웨이(Vince Chattaway)와 함께 1956년 7월에 소아진료소를 개설했다. 그들은 매주 평균 150명의 아기들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했다.<sup>84)</sup> 도로우는 1925년 10월 10일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10살 때 회심을 했고, 어렸을 적부터 십일조 생활을 했다. 공부도 탁월하게 잘해 고등학교 때 명예학생단체(National Honor Society)의 회원으로 뽑힐 정도였다.<sup>85)</sup> 도로우는 공과대학에 진학했으나, 군인으로 전쟁에 참가해야 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지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선교사 소명을 갖게 되었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학교(Washington University) 의과대학에서 수학하고, 애틀랜타와 세인트루이스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했다.<sup>86)</sup> 도로우는 소아과 분야 의료선교를 지망하는 메리 길리랜드(Mary Gilliland)와 1951년 1월 16일 결혼했다. 부부는 세 아들 프레드(Fred), 데이비드(David), 칼(Carl)을 두었다.<sup>87)</sup>

침례병원은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조이전 목사와 여자 전도사 한 명을 채용했다. 그들은 입원 환자를 돌보고, 문맹자를 위해 매주 두 번의 야간 수업을 했다.<sup>88)</sup> 목회자들의 활동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 새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싶었으나 당시 영도에는 침례교회가 없었다. 그들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56년 12월에 드

---

83) Ibid., 2-4.

84) Wheat, "Korean Mission," *Annual*, May 1957, 174.

85) Mary Dorrough, "My Second Son is a Missionary Doctor," *Royal Service* 51 (June 1957), 1-3.

86) Ibid., 3.

87) Ibid.

88) "Gateway to Heaven," 13.



디어 12명의 창립 회원과 15명의 침례 지원자를 중심으로 영선침례교회를 세웠다.<sup>89)</sup>

1957년도 침례병원 현황은 라잇이 원장으로 도로우가 의료 실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특이한 일은 루시 라잇이 간호사자격 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이다. 라잇은 한국어로 시험을 보아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은 최초의 미국인이었다.<sup>90)</sup> 그러나 의사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다. 동양총무 크로리가 1957년 2월 21일에 라잇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도로우가 나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 번째 회기 사역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고, 라잇 역시 비슷한 입장이라고 했다. 나는 당신들이 언어와 생활환경,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곤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언어를 좀 더 이해하고 병원 사역이 안정되면 완화될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견뎌 달라.<sup>91)</sup> 즉 크로리는 라잇을 다독이는 편지를 발송한 것이다.

라잇은 크로리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도로우가 당신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태를 촉발시킨 문제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다.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해외선교부가 램브라이트 부부(Lambrights)와 테버 부부(Tabors)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두 가정이 한국으로 파송되도록 예정된 것으로 안다. 테버는 색소암 진단을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파송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힘들어 하고 있다. 선교부가 테버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나와 선교부의 관계는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 3명의 의사 선교사가 필요한데, 현재 두 명밖에 없다. 한국인 의사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유일한

89) Wheat, "Korean Mission," *Annual*, May 1957, 175; "Gateway to Heaven," 13.

90) Crawley, "Korea Mission," *Annual*, May 1958, 182-3.

91) Winston Crawley, Letter to Dr. Robert M. Wright, Baptist Mission A.P.O. 59-c/o Postmaster, San Francisco, California, February 21, 1957.

가능성은 한국인 의사를 미국으로 보내 몇 년간 훈련을 받고 오도록 하는 것이다.<sup>92)</sup> 침례병원을 1등급 병원이 되게 하려면 최소 4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1등 병원을 지향하지 않으면 선교와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일도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일본은 4명의 의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은 단지 두 명 뿐이다. 세 명이 있는 인도네시아보다 적다.<sup>93)</sup> 라잇 병원장의 강력한 항의 편지는 효과를 발휘하여, 찰스 테버 부부가 1957년에 부산 침례병원으로 왔다.

라잇의 아내 폴라는 다른 방식으로 침례병원 사역을 도왔다. 그는 미국의 후원자들에게 한국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로 비누, 치약, 칫솔, 손수건, 사탕 등을 보낼 때, 병원 수술실에서 사용할 무명실과 실 감는 통(실패)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물자들을 보낼 때, 반드시 한국 우편을 통해 보내야 하며 세관 통과를 위해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미군 군사 우체국으로 보내면 반송되므로 한국 주소 PO Box 76, Pusan, Korea로, '한국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물자'라는 문구를 표기한 채 보내야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는 점도 말했다.<sup>94)</sup>

1958년도 침례병원은 라잇이 원장이었고, 수간호사 루시 라잇이 휴가를 떠나 브래넬이 대신 수간호사를 맡고 있었다. 헛 간호선교사와 5명의 한국인 의사, 27명의 한국인 간호사, 1명의 병원 목사, 30명의 직원이 함께 있었다.<sup>95)</sup> 도로우가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1958년 내내 병원에 상주

---

92) Dr. Robert M. Wright, Baptist Mission A.P.O. # 59 San Francisco, California, Letter to Dr. Winston Crawley, P.O. Box 5148, Richmond, Virginia, March 7, 1957, 1-2. 5페이지에 달하는 편지여서 편이상 페이지 수를 기입함.

93) Ibid., 3.

94) Bob & Paula Wright, Baptist Mission PO Box 76 Pusan, Korea, Letter to Friends and Family, October 1957, 2.

95) "Gateway to Heaven," 13.

한 의사 선교사는 라잇 원장이 유일했다.<sup>96)</sup>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침례 병원은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 IV. 한국 침례교회에 끼친 영향 및 결론

남침례교회는 한국을 주요 선교지로 선정하고 1955년부터 젊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대거 파송했다. 이들 중 한국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찍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갔으나,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선교사들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며 사역했다.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남침례교 선교사들이 한국 침례교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자.

### 1. 긍정적 영향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영혼구원과 교회설립을 확고한 선교 목표로 정하고 그에 부합하게 사역했는데, 그것은 당시 한국 침례교회의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 했다. 선교사들은 구호사업을 인도적 사업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영혼구원과 교회설립에 활용하여 한국 침례교회를 기사회생시킨 후, 곧장 개교회의 발전과 내실화로 사역의 방향을 전환했다. 구호사업도 교회가 발전해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회를 강화시키는 정책은 옳은 결정이었다. 선교사들은 구호사업을 축소하고 전도와 교회 개척, 예배당 건축, 학생부, 청년부, 부인전도회, 청지기운동 등을 위해 선교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견실한 교회들이 늘어나 한국에서 침례교회가 존립할 수 있게 되었다.

---

96) Lucy Wagner, Paula Wright, Juanita Jones, "O Worship the King in Korea," *Royal Service* 54 (November, 1959), 36; Crawley, "Korea," *Annual*, May 1959, 176.

선교사들이 침례회신학교와 침례병원에 인력과 자금을 대거 투입하여 교단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한 것 역시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신학교를 통해 배출된 건전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은 교단의 정체성 확립과 장기적 발전의 근거요 동력이 되었다. 1955년 침례병원의 개원은 의료선교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게 했으며 침례교회의 위상도 높여주었다. 침례병원은 실질적인 선교 거점의 역할도 했는데, 부산의 여러 교회들은 침례병원을 통해 세워졌다. 이처럼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남침례교 선교사들의 사역은 한국 침례교회로 하여금 교단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 공헌을 했다.

## 2. 부정적 영향

남침례교 선교는 한국 침례교회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도 끼쳤다. 첫째, 한국 침례교회는 전신인 대한(동아)기독교 때부터 이어온 강력한 자립정신이 남침례교회로부터 풍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급격히 의존적인 교회로 바뀐 점이다. 의존적 태도는 오랜 기간 교회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sup>97)</sup> 둘째, 교단의 풍토가 불건전하게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 점이다. 한국 침례교회는 물질과 권력에 초연하고, 복음전도에 힘쓰는 순수한 교단이었는데, 남침례교회의 물량적 지원으로 세속화되기 시작했다. 총회가 남침례교 선교부의 지원금을 개교회로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자, 총회는 개교회의 상부 기관이 되고, 교단 지도자들은 교권 장악에 몰두하는 현상이 일어났다.<sup>98)</sup>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목회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점이다. 남침례교 선교사들은 총회의 중앙집권화 현상과 지원금의 불명확한 사용을 우려하여 개교회에 직접 재정

---

97)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393-4.

98) Ibid.

지원을 하려 했는데, 그것은 총회와 선교부 간의 갈등을 촉발시켰다. 총회 실행위원회가 총회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선교부에 공식적으로 발송할 정도로 양측의 갈등이 심각했다.<sup>99)</sup> 한편 한국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의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삶을 보고 분노했다. “요리사, 가정부, 문지기, 운전수, 통역관, 비서들로 둘러싸여” 있는 선교사들과 자신들의 가난을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꼈다.<sup>100)</sup> 넷째, 선교부의 풍부한 물질적 지원으로 인해 전입 목회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이다. 한국 침례교회는 1950년에 약 10여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1955년에 117명, 1959년에 142명으로 증가하였다. 새로 임명된 목사의 대다수는 침례교 신앙과 행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타 교단 출신 목회자들이었다.<sup>101)</sup> 이들은 목회의 공백을 메워 교단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나, 교단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일으켰다. 다섯째, 선교부의 선교자금과 관련하여 교단 내 파벌이 형성된 점이다. 교권을 장악하여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파벌 간의 대립은 1959년에 교단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sup>102)</sup>

이처럼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남침례교 선교 사역은 한국 침례교회에 긍정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끼쳤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남침례교 선교는 한국 침례교회를 회생시키고 교단의 기반을 마련해준 긍정적 영향이 워낙 커서,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남침례교 선교사들의 사역은 대체로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99)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침례교회사』, 190-1.

100) Cho, “A History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166-7.

101) Ibid., 155.

102) Ibid., 155-6.

# 참고자료

## 1. 단행본

- 조해도, 왕은신. 『한국침례교 여전도회사』. 서울: 유니게출판사, 1998.
- 총회역사편찬위원회. 『한국침례교회사』.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0.
- 침례병원 40년사 편찬위원회. 『침례병원 40년사』. 부산: 우주문화사, 1997.
-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침례신학대학교 50년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 2. 정기간행물

- Abernathy, Jewell Leonard. "Brothers in Christ in Korea." *The Baptist Training Union Magazine* 34. August 1959, 12-3, 50.
- \_\_\_\_\_. "Can Catch One Small House for Kim?" *Royal Service* 49. November 1955, 27.
- \_\_\_\_\_. "Letter-ettes." *Royal Service* 49. December 1955, 24.
- \_\_\_\_\_. "Music for a City." *Royal Service* 50. December 1956, 13, 38.
- Abernathy, John A. "Above the Thirty-Eighth Parallel." *The Commission* 19. May 1956, 29.
- Cauthen, Baker James. "Found: 10,000 Baptists!" *The Commission*. March 1952, 12-4.
- "Designed for Growth." *The Commission* 21. July 1958, 46.
- Dorough, Mary. "My Second Son is a Missionary Doctor." *Royal Service* 51. June 1957, 1-3.
- "Foreign Mission News (Korea)." *The Commission* 18. September 1955, 16-7.
- "Foreign Mission News (Korea)." *The Commission* 18. October 1955, 12.

- “Foreign Mission News (Korea).” *The Commission* 18. November 1955, 13.
- Gammage, Albert W. “Korean Baptists Can Teach Devotion to Revival Efforts.” *The Commission* 22. April 1959, 28.
- “Gateway to Heaven.” *The Commission* 22. March 1959, 12-3.
- Goodwin Jr., J. G. “Mission in Transition.” *The Commission* 38. March 1975, 16-7.
- Gray, Ione. “Our Part in World Missions.” *The Baptist Adult Union Quarterly* 27. April-June 1956, 13-4.
- Jones, Don C. “Korea-Land to Love.” *The Commission* 22. March 1959, 74-5.
- Jones, Juanita. “Korean Seminary Students Show Concern for Unreached Villages.” *The Commission* 22. April 1959, 24.
- Marler, Martha Ellen. “Seeing a Need She Cannot Meet, Missionary Realizes She Can Pray.” *The Commission* 22. February 1959, 25.
- Marler, L. Parkes. “A Communist Was Converted.” *The Commission* 21. April 1958, 7, 27.
- \_\_\_\_\_. “Epistles.” *The Commission* 19. October 1956, 27.
- Wagner, Lucy. “Epistles.” *The Commission* 19. October 1956, 28.
- \_\_\_\_\_. “Leaders in Training on Ul Lung Do.” *The Commission* 23. January 1960, 28-30.
- Wagner, Lucy, Paula Wright, Juanita Jones. “O Worship the King in Korea.” *Royal Service* 54. November, 1959, 28-37.
- Willocks, R. Max. “A Chain of Churches Develops As Koreans Share the Gospel News.” *The Commission* 21. November 1958, 24.

### 3. 미간행물

#### 1) 학위논문

Cho. Timothy Hyo-Hoon. “A History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1889-1969.” T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70.

2) 편지

Crawley, Winston. Letter to Dr. Robert M. Wright, Baptist Mission A.P.O. 59-c/o Postmaster, San Francisco, California, February 21, 1957.

Wright, Bob & Paula. Baptist Mission PO Box 76 Pusan, Korea, Letter to Friends and Family, October 1957.

Wright, Robert M. Baptist Mission A.P.O. # 59 San Francisco, California, Letter to Dr. Winston Crawley, P.O. Box 5148, Richmond, Virginia, March 7, 1957, 1-5.

4. 기타 자료

Branum, Irene. “Three Mission Stations in Korea.”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June 1954, 171-2.

Crawley, J. Winston. “Korea.”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9, 175-6.

\_\_\_\_\_. “Korea Mission.”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8, 181-3.

“Handbook, Korea Baptist Mission (1961).” 1-14.

Ray, Dan and Frances. “Korean Mission.”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6, 161-2.

Wheat, Ruby. “Korea.”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5, 169-70.

\_\_\_\_\_. “Korean Mission.” *Annual of Southern Baptist Convention*. May 1957, 174-5.